

「농축산물 할인지원」으로 추석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가볍게 하세요!

- 송미령 장관, 추석 농축산물 할인지원 및 수급동향 등 점검
- 올해 쌀 초과 생산 예상, 본격적인 햅쌀 판매로 향후 쌀 수급 안정 전망

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(이하 농식품부) 장관은 9월 28일(일) 김스클럽 강남점을 찾아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, ‘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’ 현장을 점검하였다.

농식품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**농축산물 할인행사(9.15~10.5)**를 추진중에 있다. 전국의 약 12,000개 유통업체와 협업하여 **국산 농축산물 전 품목에 대하여 주마다 1인당 2만원 한도로 최대 40% 할인**을 실시한다. 농식품부는 평소에는 가격 상승폭이 큰 국산 농축산물 품목에 한하여 주마다 1인당 1만원 할인을 지원해 왔으나, 이번 추석 행사에서는 추석 성수품 15개 품목을 할인 지원하고, 할인 한도도 인당 2만원으로 상향하였다.

이번 3주간 행사기간 중 마지막 주인 10월 1일부터 5일까지(5일간) 전국 249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%(1인당 2만원 한도)를 **온누리상품권**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별도 추진한다.

송 장관은 “농식품부는 유통업체들과 협업하여 **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추진하여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노력하고 있다**”고 하면서,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 할인지원 혜택을 통해 보다 **풍성하고, 즐거운 추석**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. 한편, “올해 쌀 작황도 평년에 비해 **양호한 편**”이라고 설명하면서 “**햅쌀이 본격적으로 판매되면 쌀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**”라고 부연하였다.

담당 부서 <할인지원>	유통소비정책관실 식생활소비정책과	책임자	과 장	하경희 (044-201-2271)
		담당자	사무관	안창석 (044-201-2285)
담당 부서 <쌀>	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동현 (044-201-1810)
		담당자	서기관	정정희 (044-201-1815)